산림청 "울진 응봉산 불길 가장 세…인력 진화 한계로 진화 시간 길어질 듯"



## '코로나19' 팬데믹

**KBS NEWS** 

# 미국 "백신 접종 완료자 마스크 벗어라"…시기상조 논란도

입력 2021.05.14 (21:24) | 수정 2021.05.14 (22:08)

뉴스 9









박범계, '이성윤 공소장 언론 유출 '진상조사 지시

#### [앵커]

반면 미국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

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거리두기도 할 필요 없다는 새로운 지침이 나 왔습니다.

물론,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

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

#### [리포트]

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달 만에, 미국이 마스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.

[바이든/미 대통령: "오늘은 대단한 날입니다.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마 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"]

#### 이 시각 헤드라인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 19대보 다 3.5%p ↑

🌁 재난포털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'NLL 월선'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 …"항로 착오로 넘어와"





#### 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71.1%…19대보 다 4%p ↑
- 2 이 "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" 윤 "투표 율 기대에 못미쳐"
- 3 "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"···'제주들불축제'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20대 대통령선거…전국 14,464개 투표소서 진행
- 6 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

코로나백신을 1차와 2차 모두 맞은 사람에 한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,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.

[로셸 왈렌스키/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: "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.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"]

다만,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와 주정부가 지정한 병원 등 공공장소, 그리고 사업주가 요구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.

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

[시민 : "이제야 깊은 숨을 쉴 수 있겠군요."]

[시민: "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마스크 쓰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."]

뉴욕타임즈가 감염병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한다는 의견이 70%였습니다.

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전체 인구의 80%는 되어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.

[매트 윌리스/마린 카운티 보건소 : "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한 인센티 브입니다.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"]

백신을 모두 맞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은 코로나 유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

이 지침의 성패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접종률을 얼마나 더 높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.

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.

촬영기자:한규석/영상편집:고응용/그래픽:한종헌 김지훈/자료조사:권도인





#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. 네이버에서도 보세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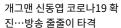
김양순 기자 ysooni@kbs.co.kr 김양순 기자의 기사 모음 ▶

뉴스 9 전체보기





#### '코로나19' 팬데믹





진…보건소 대기 행렬



제주서 하루 4천 명 가까이 확 경기 9만 6684명 최다 확진…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하루 10만 명대 발생 코앞



더보기

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### 오늘의 HOT클릭!



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…선관위 "모두 유효표"



[20대 대선 인증샷]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"투표했어요~"



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

"경북·강원 산불 났는 데"…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
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 울진·삼척 산불 엿새째···전체 진화율 70% 중국 매체,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···"누가 이기든 한중관계··· '정확하고 재미있게'···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

[영상] "특정 후보 연상시킨다?"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,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…"국가부도 임박"

#### 지역뉴스

울산 부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KBS소개 ▲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

KBS N 채널 ▲ KBS WORLD ▲

KBS /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(여의도동) / 대표전화 02-781-

1000 / 기사배열 책임자, 청소년보호책임자 : 이은정

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/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/ 시청자상담실 02-781-1000 /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(2010년 6월 23일)

Copyright © KBS All Rights Reserved.